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BY: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5951

2008년 2월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결혼 및 출산 의도와 관련 요인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라 송 주

고등학생의 결혼 및 출산 의도와 관련 요인

Intention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2008*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라 송 주

고등학생의 결혼 및 출산 의도와 관련 요인

지도교수 류 소 연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라 송 주

라송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 년 *12* 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표목차 ii
ABSTRACT iii

I. 서론 1

Ⅱ. 연구방법 3
A. 연구대상 3
B. 자료수집방법 3
C. 분석방법 4

Ⅲ. 연구결과 6
A.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포 6
B. 연구대상자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도 11
C.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13
D.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0
E. 연구대상자의 결혼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27
F. 연구대상자의 출산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29

Ⅳ. 고찰 31

Ⅴ. 요약 및 결론 35

참고문헌 37
부록 41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의 성별 분포 7
표 2. 연구대상자 가족관련 특성의 성별 분포 9
표 3. 연구대상자 진로관련 특성의 성별 분포 10
표 4. 연구대상자 성별 자아존중감과 통제신념 11
표 5. 연구대상자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성별 인식 분포 12
표 6. 연구대상자 예상하는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13
표 7. 남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14
표 8. 여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15
표 9. 남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16
표 10. 여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17
표 11. 남학생 진로관련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18
표 12. 여학생 진로관련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19
표 13. 남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19
표 14. 여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20
표 15. 남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1
표 16. 여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2
표 17. 남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3
표 18. 여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4
표 19. 남학생 진로관련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5
표 20. 여학생 진로관련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6
표 21. 남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6
표 22. 여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27
표 23. 연구대상자 결혼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28
표 24. 연구대상자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30

ABSTRACT

Intention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uthor : Ra, Song-Ju

Advisor : Ryu, So-Yeon, MD, MPH, Ph.D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intention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1,140 students of grade 1 and 2 in 4 high schools, Gwang ju. Using data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is study analyzed intension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ts related factor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ial characteristics, future plan and psycho-social factors.

About 79.4% of boys and 65.8% of girls have intention to get married in the future. And 77.4% and 71.0% in boys and girls have intention to be a parent in the future. The boy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response both in marriage and childbirth than girls.

As a result of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ed factors with the intention to marriage in boys were self-cognitive health state, familial type, plans for the job, self-esteem scores. In girls, grade, religion,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 related with intention to marriage.

The related factors with the intention to childbirth were plans for the job, self cognitive health state and self-esteem in boys and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parental expectations for their child's education, and self-esteem in girl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psycho-social factor such as self-esteem have relation with the intention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of high school students. It suggests that the long-term and organized policy which helps high school students to change their recognitions on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 programs can reinforce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ill be needed.

Keywords : intention, marriage, childbirth, related factors, high school students

Ⅰ.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다. 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1984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1987년부터 1.6명으로 OECD 평균을 유지하다가, 1997년 IMF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어 2003년에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도달하였다(통계청, 2004). 서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6명대에서 2명대로 감소하기까지 100여년 이상이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25년 만에 2명대로 감소하여 서구에 비해 4배 정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런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1960~70년대 정부주도 하에 가족계획 홍보와 피임보급 등으로 시작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의해 가속화되었고, 1980년에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 및 인구증가 억제 시책의 강화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출산, 혼인, 이혼 등 가족제도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전반에 관련되어 있다(장혜경, 2003).

저출산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의 양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의 증대, 많은 결혼비용, 고액의 주거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초혼 연령 상승 및 미혼율의 증대이다. 둘째, 자녀 가치관의 변화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소 자녀관 형성을 들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및 사회적 인프라 부족이다. 넷째,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이다.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자녀출산을 망설이게 되고, 이는 출산율 저하와 연결되는 것이다. 다섯째, 불임부부의 증대이다.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불임률의 증가는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출산이 단일한 원인으로 인해 기인된 것이 아닌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정혜옥, 2006).

낮은 출산율의 문제점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복지 관련 부담의 증가와 함께, 인구규모의 감소 즉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Hantrais, 1997; 이원덕과 장지연, 2002; 김승권, 2003).

1996년 정부는 35년간 시행해왔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고, 2000년부터 그 동안의 출산억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출산격려금과 육아 양육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몇 차례 정책을 수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으며, 낮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더욱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Wenk와 Carrett, 1992; 이시백, 2001).

저출산에 관련한 최근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책적인 연구가 대부분이고(김정이, 2004; 김승권, 2004; 김유경과 김승권, 2004; 손승영, 2005; 김정례, 2005; 정상훈, 2005),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는 여고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김보경과 김한곤, 2005; 강복수 등, 2005), 이들 연구는 일반적 특성이나 가족관련 특성만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을 뿐 환경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또한 결혼과 출산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성인이 되어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게 될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개인관련 특성, 가족관련 특성, 미래 계획과 심리적 특성 등을 포함한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실질적 출산 장려정책 마련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남, 여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 재학중인 1·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각 학년별로 4개 반을 추출한 후 추출된 반 학생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학생 1,167명에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설문지 작성이 불성실한 27부를 제외하고 총 1,14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B .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07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과정은 먼저 선정된 학교의 허락을 얻은 후,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전 해당 반에 들어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 스스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년, 종교, 성장지역, 성적, 계열, 건강상태 등), 가족관련 특성(경제적 수준, 월평균소득, 부 학력, 모 학력, 모 직업, 가족형태, 형제수 등), 진로관련 특성(본인 예상 진로, 부모 기대 진로, 직업계획 등), 자아존중감 및 통제신념,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결혼 계획, 자녀 계획 등) 등 총 5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통제신념 측정도구

통제신념은 Rotter(1975)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 내부적 통제신념(internal locus of control)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한 사건의 발생이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인지하는 특성이고, 이와 반대로 외부적 통제신념(external locus of control)이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건은 어

떤 특정의 상황에서 한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즉, 그의 의지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을 뜻한다. 내부적 통제신념이 강한 사람은 외부적 통제신념이나 우연신념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인성적 성향은 다양한 건강관련 행태에 긍정적으로 기여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venson의 10개 항목의 축소형 통제신념척도(Levenson, 1973)를 이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내부적 통제신념 4문항, 우연신념 2문항, 외부적 통제신념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조금 그렇다'에 1점, '대부분 그렇다'에 2점, '매우 그렇다'에 3점을 부여하는 각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통제신념 영역 성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으로 측정된 신뢰도는 내부적 통제신념 0.575, 우연신념 0.433, 외부적 통제신념 0.685이었다.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자아에 대한 태도를 보는 긍정형 문장과 부정형 문장이 각각 5개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1점, '보통이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형 문장은 역으로 환산했으며, 자아존중감 점수는 각 문항점수를 총합으로 계산하였다. 자아존중감 총점은 최저 10점,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80이었다.

C .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WIN Ver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변수의 척도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고, 특성의 성별 분포, 제반 특성과 결혼과 출산과의 관련성 등은 카이제곱검정

과 t-검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남·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결혼 및 출산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결혼 의도는 질문 중 "학생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질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로 응답한 경우를 "결혼 희망군"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지 않는 편이 좋다'와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를 "독신 희망군"으로 정의하였다.

출산의도는 "향후 자녀를 가질 예정이냐?" 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경우를 "출산 희망군"으로 '아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로 답한 집단을 "무자녀 희망군"으로 정의하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결혼의도와 출산의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중 범주형 변수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포

연구대상자의 성별 특성 분포는 남자는 51.6%, 여자는 48.4%였고, 학년은 1학년 남녀 각각 51.0%, 52.9%, 2학년 남녀 각각 49.0%, 47.1%였다. 종교는 남자의 경우 없음이 47.0%, 기독교가 26.7% 순이고, 여자는 없음이 41.8%, 기독교가 37.7%였다. 성장지역은 광주가 남자 75.8%, 여자가 72.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적은 상위 10%이내 남녀 각각 19.2%, 12.4%, 상위 30%이내는 25.2%, 23.8% 상위 50%이내 25.0%, 29.8%였다. 계열은 남자는 이과계열이 39.2%였고, 여자는 실업계열이 37.6%로 많았다.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가 남녀 각각 64.0%, 61.2%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남녀 각각 27.0%, 30.4%였고, '건강하지 않다'는 남녀 각각 9.0%, 8.3%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특성 분포에서 종교, 성적, 계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 성장지역, 건강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변수	남	여	계	p-값
학년				
1학년	300(51.0)	292(52.9)	592(51.9)	0.565
2학년	288(49.0)	260(47.1)	548(48.1)	
종교				
기독교	157(26.7)	208(37.7)	365(32.0)	0.000
천주교	73(12.4)	61(11.1)	134(11.8)	
불교	69(11.8)	38(6.9)	107(9.4)	
기타	12(2.0)	14(2.5)	26(2.3)	
없음	276(47.0)	231(41.8)	507(44.5)	
성장지역				
광주	445(75.8)	400(72.9)	845(74.4)	0.285
타지역	142(24.2)	149(27.1)	291(25.6)	
성적				
상위 10%이내	111(19.2)	66(12.4)	177(15.9)	0.011
상위 30%이내	146(25.2)	127(23.8)	273(24.5)	
상위 50%이내	145(25.0)	159(29.8)	304(27.3)	
상위 70%이내	111(19.2)	103(19.3)	214(19.2)	
상위 70%이후	66(11.4)	79(14.8)	145(13.0)	
계열				
문과계열	172(29.5)	172(31.2)	344(30.3)	0.000
이과계열	229(39.2)	135(24.5)	364(32.1)	
예.체능계열	17(2.9)	37(6.7)	54(4.8)	
실업계열	166(28.4)	207(37.6)	373(32.9)	
건강상태				
건강하다	375(64.0)	338(61.2)	713(62.7)	0.426
보통이다	158(27.0)	168(30.4)	326(28.6)	
건강하지않다	53(9.0)	46(8.3)	99(8.7)	
계	588(51.6)	552(48.4)	1,140(100.0)	

연구대상자 가족관련 특성의 성별 분포는 경제적 수준에서 '보통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자는 72.2%, 여자는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 학력은 남녀 각각 대졸이 45.2%, 42.3%로 가장 많았고, 모 학력은 남녀 각각

고졸이 51.7%, 58.5%로 가장 많았다. 모 직업은 전업주부가 남녀 각각 53.9%, 59.4%였다. 가족형태는 부모님 모두가 친부모인 경우는 남녀 각각 87.0%,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편부모는 10.1%, 새 가정은 2.6%, 부모안계심도 0.9%였다. 경제적 수준, 월평균 소득, 부모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형제 수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2.3±0.7명, 여학생 2.5±0.8명으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 직업,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 가족관련 특성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변수	남 (n=588)	여 (n=552)	계 (n=1,140)	p-값
경제적 수준				
하	90(15.4)	87(16.0)	177(15.7)	0.001
중	421(72.2)	423(77.9)	844(75.0)	
상	72(12.3)	33(6.1)	105(9.3)	
월평균 소득(만원)				
0～149	60(10.5)	67(13.0)	127(11.8)	0.050
150～299	170(29.8)	178(34.9)	348(32.2)	
300～449	203(35.6)	169(33.1)	372(34.4)	
450~599	60(10.5)	51(10.0)	111(10.3)	
600이상	77(13.5)	45(8.8)	122(11.3)	
부 학력				
중졸이하	32(5.5)	46(8.4)	78(6.9)	0.013
고졸	203(35.1)	219(39.9)	422(37.4)	
대졸	261(45.2)	232(42.3)	493(43.7)	
대학원졸	82(14.2)	52(9.5)	134(11.9)	
모 학력				
중졸이하	38(6.6)	48(8.7)	86(7.6)	0.002
고졸	300(51.7)	321(58.5)	621(55.0)	
대졸	192(33.1)	157(28.6)	349(30.9)	
대학원졸	50(8.6)	23(4.2)	73(6.5)	
모 직업				
있다	261(46.1)	212(40.6)	473(43.5)	0.067
없다	305(53.9)	310(59.4)	615(56.5)	
가족형태				
친부모	508(87.0)	471(85.9)	979(86.5)	0.112
새 부모	17(2.9)	12(2.2)	29(2.6)	
편 부모	51(8.7)	63(11.5)	114(10.1)	
부모 안 계심	8(1.4)	2(.4)	10(.9)	
형제수(명)*	2.3±0.7	2.5±0.8	2.4±0.8	<0.001

* : 평균±표준편차

연구대상자 진로관련 특성의 성별 분포는 본인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

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학생 66.6%, 여학생, 59.7%, 대학원 이상까지 진학하겠다고 한 경우가 남녀 각각 19.1%, 16.3%였다. 부모가 기대하는 진로의 경우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학생 72.4%, 여학생 68.3%, 대학원 이상까지 진학을 기대하는 경우가 남녀 각각 19.2%, 13.9%였다. 본인예상 진로, 부모기대 진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직업계획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 진로관련 특성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변수	남 (n=588)	여 (n=552)	계 (n=1,140)	p-값
본인예상 진로				
고등학교 졸업	30(5.1)	46(8.3)	76(6.7)	0.001
전문대학 졸업	54(9.2)	87(15.7)	141(12.4)	
4년제 대학 졸업	390(66.6)	330(59.7)	720(63.2)	
대학원 이상	112(19.1)	90(16.3)	202(17.7)	
부모기대 진로				
고등학교 졸업	9(1.5)	29(5.3)	38(3.3)	0.000
전문대학 졸업	40(6.9)	69(12.5)	109(9.6)	
4년제 대학 졸업	422(72.4)	377(68.3)	799(70.4)	
대학원 이상	112(19.2)	77(13.9)	189(16.7)	
직업 계획				
있다	540(91.8)	509(92.2)	1049(92.0)	0.902
없다	48(8.2)	43(7.8)	91(8.0)	

연구대상자의 성별 자아존중감과 통제신념은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 29.2±5.2점, 여학생 28.9±4.8점으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내부적 통제신념, 외부적 통제신념, 우연신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표 4).

표 4. 연구대상자 성별 자아존중감과 통제신념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수	남 (n=588)	여 (n=552)	계 (n=1,140)	p-값
자아존중감(점)	29.2±5.2	28.9±4.8	29.0±5.0	0.370
내부적 통제신념(점)	7.0±2.0	6.7±1.8	6.9±1.9	0.006
외부적 통제신념(점)	4.3±2.6	3.7±2.4	4.0±2.5	<0.001
우연 신념(점)	2.2±1.3	2.1±1.3	2.2±1.3	0.020

B. 연구대상자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도

연구대상자 중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 79.4%, 여학생 65.8%였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남녀 각각 78.1%, 75.6%였고,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남학생 77.4%, 여학생 70.8%였다. '자녀는 결혼 후 낳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녀 각각 72.7%, 84.3%였다. 결혼에 대한 생각, 자녀계획, 출산형태, 자녀수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녀의 필요성 인지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표 5. 연구대상자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성별 인식 분포

단위 : 명(%)

변수	남 (n=588)	여 (n=552)	계 (n=1,140)	p-값
결혼 계획				
반드시해야한다	213(36.2)	99(17.9)	312(27.3)	0.000
하는 편이 좋다	254(43.2)	264(47.9)	519(45.5)	
해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86(14.6)	155(28.1)	241(21.1)	
하지 않는 편이 좋다	22(3.8)	25(4.5)	47(4.1)	
생각해 보지 않았다	13(2.2)	9(1.6)	22(1.9)	
자녀필요성 인지				
꼭 있어야한다	178(30.3)	148(26.7)	326(28.5)	0.104
있는 편이 좋다	281(47.8)	271(48.9)	552(48.3)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82(13.9)	100(18.1)	182(15.9)	
없는 편이 좋다	19(3.2)	20(3.6)	39(3.4)	
생각해 보지 않았다	28(4.8)	15(2.7)	43(3.8)	
출산 계획				
있다	455(77.4)	391(70.8)	846(74.2)	0.013
없다	133(22.6)	161(29.2)	294(25.8)	
자녀출산 형태				
결혼 후 낳아야한다	427(72.7)	467(84.3)	894(78.4)	0.000
결혼과 관계없이 낳을수있다	85(14.5)	37(6.7)	122(10.7)	
생각해 보지 않았다	75(12.8)	50(9.0)	125(11.0)	
희망 자녀수				
없어도 상관 없다	33(5.6)	61(11.1)	94(8.3)	0.016
1명	75(12.8)	65(11.9)	140(12.3)	
2명	331(56.5)	304(55.5)	635(56.0)	
3명	112(19.1)	92(16.8)	204(18.0)	
4명이상	35(6.0)	26(4.7)	61(5.4)	

성별에 따라 예상하는 결혼 나이와 출산 나이는 이상적인 결혼 나이는 남녀 각각 27.7±2.9세, 27.6±2.3세로 유의하지 않았고, 결혼예상나이, 첫 출산 이상적인 나이, 첫 출산 예상 나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표 6. 연구대상자 예상하는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수	남 (n=588)	여 (n=552)	계 (n=1,140)	p-값
이상적 결혼나이(세)	27.7±2.9	27.6±2.3	27.7±2.6	0.314
결혼 예상나이(세)	28.2±2.6	27.6±2.3	27.9±2.5	0.000
첫 출산 이상적나이(세)	29.3±3.4	28.7±2.5	29.0±3.0	0.000
첫 출산 예상나이(세)	29.5±3.3	28.9±2.6	29.2±3.0	0.001

C.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남학생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은 80.3%, 2학년은 78.5%였고, 종교는 천주교가 84.9%, 기독교 79.6%, 불교와 없음에서 78.3%,기타에서 75.0%순이였다. 성적은 상위 70%이후에서 81.8%, 상위 50%이내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5.9%로 가장 많았다. 계열에서는 이과계열이 85.2%로 높았고,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하다 순으로 결혼비율이 낮아졌다. 계열과 건강상태는 결혼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학년, 종교, 성장지역과 성적은 결혼의도와 관련이 없었다(표 7).

표 7. 남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결혼 희망군	독신 희망군	p-값
학년			
1학년	241(80.3)	59(19.7)	0.648
2학년	226(78.5)	62(21.5)	
종교			
기독교	125(79.6)	32(20.4)	0.775
천주교	62(84.9)	11(15.1)	
불교	54(78.3)	15(21.7)	
기타	9(75.0)	3(25.0)	
없음	216(78.3)	60(21.7)	
성장지역			
광주	359(80.7)	86(19.3)	0.213
타지역	107(75.4)	35(24.6)	
성적			
상위 10%이내	87(78.4)	24(21.6)	0.765
상위 30%이내	119(81.5)	27(18.5)	
상위 50%이내	110(75.9)	35(24.1)	
상위 70%이내	89(80.2)	22(19.8)	
상위 70%이후	54(81.8)	12(18.2)	
계열			
문과계열	137(79.7)	35(20.3)	0.020
이과계열	195(85.2)	34(14.8)	
예.체능계열	12(70.6)	5(29.4)	
실업계열	121(72.9)	45(27.1)	
건강상태			
건강하다	316(84.3)	59(15.7)	<0.001
보통이다	119(75.3)	39(24.7)	
건강하지않다	31(58.5)	22(41.5)	
계	467(79.4)	121(20.6)	

여학생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은 69.9%, 2학년은 61.5%로, 학년, 종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성장지역, 계열, 건강상태와는 관련이 없었다(표 8).

표 8. 여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결혼 희망군	독신 희망군	P-값
학년			
1학년	204(69.9)	88(30.1)	0.039
2학년	160(61.5)	100(38.5)	
종교			
기독교	151(72.6)	57(27.4)	0.014
천주교	35(57.4)	26(42.6)	
불교	30(78.9)	8(21.1)	
기타	9(64.3)	5(35.7)	
없음	138(60.0)	92(40.0)	
성장지역			
광주	262(65.7)	137(34.3)	0.828
타지역	100(67.1)	49(32.9)	
성적			
상위 10%이내	46(69.7)	20(30.3)	0.859
상위 30%이내	86(67.7)	41(32.3)	
상위 50%이내	100(62.9)	59(37.1)	
상위 70%이내	69(67.0)	34(33.0)	
상위 70%이후	51(65.4)	27(34.6)	
계열			
문과계열	109(63.4)	63(36.6)	0.687
이과계열	93(68.9)	42(31.1)	
예.체능계열	26(70.3)	11(29.7)	
실업계열	133(64.6)	73(35.4)	
건강상태			
건강하다	234(69.2)	104(30.8)	0.075
보통이다	102(61.1)	65(38.9)	
건강하지못하다	26(56.5)	20(43.5)	
계	363(65.8)	189(34.2)	

남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결혼의도와의 관련성에서 경제적 수준이 상 72.2%, 중 79.3%, 하 88.9%로 낮을수록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족형태에서는 부모님 모두 친부모인 경우 80.7%, 새 부모거나 편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는 76.5%, 부모가 안 계시는 경우는 25.0%이었다. 경제적

수준과 가족형태는 결혼 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모 직업, 부모 학력, 형제 수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9).

표 9. 남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결혼 희망군 (n=467)	독신 희망군 (n=121)	P-값
경제적 수준			
상	65(72.2)	25(27.8)	0.033
중	334(79.3)	87(20.7)	
하	64(88.9)	8(11.1)	
모 직업 여부			
있다	239(72.6)	66(21.6)	0.459
없다	212(81.2)	49(18.8)	
부 학력			
중학교이하	25(78.1)	7(21.9)	0.853
고등학교 졸업	162(79.8)	41(20.2)	
대학교 졸업	205(78.5)	56(21.5)	
대학원 이상	68(82.9)	14(17.1)	
모 학력			
중학교이하	28(73.7)	10(26.3)	0.852
고등학교 졸업	239(79.7)	61(20.3)	
대학교 졸업	153(79.7)	39(20.3)	
대학원 이상	40(80.0)	10(20.0)	
가족형태			
친부모	410(80.7)	98(19.3)	0.002
새 부모	13(76.5)	4(23.5)	
편 부모	39(76.5)	12(23.5)	
부모 안 계심	2(25.0)	6(75.0)	
형제 수(명)*	2.3±0.7	2.3±0.7	0.505

* : 평균±표준편차

여학생의 경우 경제적 수준, 모 직업여부, 부모님의 학력과 가족형태, 형제 수 모두 결혼 의도와 관련이 없었다(표 10).

표 *10.* 여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결혼 희망군 (n=363)	독신 희망군 (n=189)	P-값
경제적 수준			
상	53(61.6)	33(38.4)	0.511
중	278(65.7)	145(34.3)	
하	24(72.7)	9(27.3)	
모 직업 여부			
있다	145(68.4)	67(31.6)	0.394
없다	199(64.4)	110(35.6)	
부 학력			
중학교이하	32(69.6)	14(30.4)	0.894
고등학교 졸업	142(64.8)	77(35.2)	
대학교 졸업	151(65.1)	81(34.9)	
대학원이상	35(68.6)	16(31.4)	
모 학력			
중학교이하	32(66.7)	16(33.3)	0.899
고등학교 졸업	215(67.2)	105(32.8)	
대학교 졸업	100(63.7)	57(36.3)	
대학원이상	15(65.2)	8(34.8)	
가족형태			
친부모	308(65.4)	163(34.6)	0.827
새 부모	7(58.3)	5(41.7)	
편 부모	43(69.4)	19(30.6)	
부모 안 계심	1(50.0)	1(50.0)	
형제수(명)*	2.5±0.8	2.5±0.8	0.890

* : 평균±표준편차

남학생은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학원까지 진학할 예정인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낮아졌다. 부모기대 진로에서도 본인예상 진로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직업 계획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본인예상 진로와 직업계획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표 11).

표 *11.* 남학생 진로관련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결혼 희망군 (n=467)	독신 희망군 (n=121)	P-값
본인예상 진로			
고등학교 졸업	18(60.0)	12(40.0)	0.032
전문대학 졸업	40(74.1)	14(25.9)	
4년제 대학교 졸업	315(80.8)	75(19.2)	
대학원 이상	92(82.1)	20(17.9)	
부모기대 진로			
고등학교 졸업	4(44.4)	5(55.6)	0.056
전문대학 졸업	30(75.0)	10(25.0)	
4년제 대학교 졸업	338(80.1)	84(19.9)	
대학원 이상	91(81.3)	21(18.8)	
직업 계획			
있다	441(81.7)	99(18.3)	0.000
없다	26(54.2)	22(45.8)	

여학생의 경우 진로관련 특성인 본인예상 진로, 부모기대 진로, 직업계획과는 관련이 없었다(표 12).

표 *12.* 여학생 진로관련 특성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결혼 희망군 (n=363)	독신 희망군 (n=189)	P-값
본인예상 진로			
고등학교 졸업	25(55.6)	20(44.4)	0.358
전문대학 졸업	57(65.5)	30(34.5)	
4년제 대학교 졸업	217(65.8)	113(34.2)	
대학원 이상	64(71.1)	26(28.9)	
부모기대 진로			
고등학교 졸업	16(57.1)	12(42.9)	0.494
전문대학 졸업	44(63.8)	25(36.2)	
4년제 대학교 졸업	255(67.6)	122(32.4)	
대학원 이상	47(61.0)	30(39.0)	
직업 계획			
있다	338(66.4)	171(33.6)	0.554
없다	26(61.9)	16(38.1)	

남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은 자아존중감은 각각 29.6±5.0점, 27.3±5.4점, 내부적 통제신념 각각 7.2±2.0점, 6.5±2.1점으로 “결혼 희망군”이 “독신 희망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우연신념 점수는 각각 2.2±1.3점, 2.5±1.5점으로 “독신 희망군”이 “결혼 희망군”보다 높았고, 외부적 통제신념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13).

표 *13.* 남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수	결혼 희망군 (n=467)	독신 희망군 (n=121)	P-값
자아존중감(점)	29.6±5.0	27.3±5.4	0.000
내부적 통제신념(점)	7.2±2.0	6.5±2.1	0.001
외부적 통제신념(점)	4.3±2.6	4.6±2.6	0.252
우연 신념(점)	2.2±1.3	2.5±1.5	0.027

여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은 결혼 의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

신념은 결혼 의도에 따라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4).

표 *14.* 여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결혼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수	결혼 희망군 (n=363)	독신 희망군 (n=189)	P-값
자아자아존중감(점)	29.3±4.7	28.1±4.8	0.003
내부적 통제신념(점)	6.8±1.9	6.5±1.7	0.061
외부적 통제신념(점)	3.7±2.4	3.7±2.5	0.867
우연 신념(점)	2.1±1.3	2.1±1.3	0.813

D.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남학생에서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건강하다에서 82.1%, 보통이다 74.7%, 건강하지 못하다 52.8%로 건강상태는 출산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학년, 종교, 성장지역, 성적과 계열은 결혼의도와 관련이 없었다(표 15).

표 *15.* 남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출산 희망군	무자녀 희망군	p-값
학년			
1학년	235(78.3)	65(21.7)	0.573
2학년	220(76.4)	68(23.6)	
종교			
기독교	125(79.6)	32(20.4)	0.833
천주교	58(79.5)	15(20.5)	
불교	52(75.4)	17(24.6)	
기타	209(75.7)	67(24.3)	
없음	10(83.3)	2(16.7)	
성장지역			
광주	349(78.4)	96(21.6)	0.319
타지역	105(73.9)	37(26.1)	
성적			
상위 10%이내	84(75.7)	27(24.3)	0.893
상위 30%이내	114(78.1)	32(21.9)	
상위 50%이내	109(75.2)	36(24.8)	
상위 70%이내	89(80.2)	22(19.8)	
상위 70%이후	51(77.3)	15(22.7)	
계열			
문과계열	134(77.9)	38(22.1)	0.981
이과계열	179(78.2)	50(21.8)	
예.체능계열	13(76.5)	4(23.5)	
실업계열	127(76.5)	39(23.5)	
건강상태			
건강하다	308(82.1)	67(17.9)	0.000
보통이다	118(74.7)	40(25.3)	
건강하지못하다	28(52.8)	25(47.2)	
계	455(77.4)	133(22.6)	

여학생에서는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불교 84.2%, 기독교 77.9%, 천주교 73.8%, 기타 64.3%, 없음 61.9%순이었다. 종교여부에 따라 여학생은 출산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학년, 성장지역, 성적, 계열과 건강상태와는 관련이 없었다(표 16).

표 *16.* 여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출산 희망군	무자녀 희망군	p-값
학년			
1학년	205(70.2)	87(29.8)	0.802
2학년	186(71.5)	74(28.5)	
종교			
기독교	162(77.9)	46(22.1)	0.001
천주교	45(73.8)	16(26.2)	
불교	32(84.2)	6(15.8)	
기타	9(64.3)	5(35.7)	
없음	143(61.9)	88(38.1)	
성장지역			
광주	281(70.3)	119(29.8)	0.684
타지역	108(72.5)	41(27.5)	
성적			
상위 10%이내	43(65.2)	23(34.8)	0.193
상위 30%이내	99(78.0)	28(22.0)	
상위 50%이내	110(69.2)	49(30.8)	
상위 70%이내	69(67.0)	34(33.0)	
상위 70%이후	60(75.9)	19(24.1)	
계열			
문과계열	115(66.9)	57(33.1)	0.136
이과계열	104(77.0)	319(23.0)	
예.체능계열	29(78.4)	8(21.6)	
실업계열	141(68.1)	66(31.9)	
건강상태			
건강하다	245(72.5)	93(27.5)	0.252
보통이다	117(69.6)	51(30.4)	
건강하지못하다	28(60.9)	18(39.1)	
계	391(70.8)	161(29.2)	

남학생의 경우 가족관련 특성인 경제적 수준, 모 직업여부, 부모 학력, 가족형태, 형제 수 모두에서 출산 의도와 관련이 없었다(표 17).

표 *17.* 남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출산 희망군 (n=455)	무자녀 희망군 (n=133)	P-값
경제적 수준			
상	66(73.3)	24(26.7)	0.130
중	323(76.7)	98(23.3)	
하	62(86.1)	10(13.9)	
모 직업 여부			
있다	204(78.2)	57(21.8)	0.903
없다	236(77.4)	69(22.6)	
부 학력			
중학교 이하	25(78.1)	7(21.95)	0.402
고등학교 졸업	156(76.8)	47(23.2)	
대학교 졸업	196(75.1)	65(24.9)	
대학원 이상	69(84.1)	13(15.9)	
모 학력			
중학교 이하	27(71.1)	11(28.9)	0.775
고등학교 졸업	235(78.3)	65(21.7)	
대학교 졸업	147(76.6)	45(23.4)	
대학원 이상	38(76.0)	12(24.0)	
가족형태			
친부모	391(77.0)	117(23.0)	0.588
새 부모	12(70.6)	54(29.40)	
편 부모	43(84.3)	8(15.7)	
부모 안 계심	6(75.0)	2(25.0)	
형제 수(명)*	2.3±0.8	2.2±0.6	0.132

* : 평균±표준편차

여학생에서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서 87.0%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인 경우 63.1%로 가장 낮아 모 학력이 출산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경제적 수준, 모 직업 여부, 부 학력, 가족형태, 형제 수는 출산 의도와 관련이 없었다(표 18).

표 *18.* 여학생 가족관련 특성과 출산 의도와 관련성

단위 : 명(%)평균±표준편차

변수	출산 희망군 (n=391)	무자녀 희망군 (n=161)	P-값
경제적 수준			
상	68(78.2)	19(21.8)	0.127
중	291(68.8)	132(31.2)	
하	26(78.8)	7(21.2)	
모 직업 여부			
있다	154(72.6)	58(27.4)	0.476
없다	215(69.4)	95(30.6)	
부 학력			
중학교 이하	34(73.9)	12(26.1)	0.566
고등학교 졸업	160(73.1)	59(26.9)	
대학교 졸업	159(68.5)	73(31.5)	
대학원 이상	34(65.4)	18(34.6)	
모 학력			
중학교 이하	39(81.3)	9(18.8)	0.018
고등학교 졸업	230(71.7)	91(28.3)	
대학교 졸업	99(63.1)	58(36.9)	
대학원 이상	20(87.0)	3(13.0)	
가족형태			
친부모	326(69.2)	145(30.8)	0.111
새 부모	7(58.3)	5(41.7)	
편 부모	52(82.5)	11(17.5)	
부모 안 계심	1(50.0)	1(50.0)	
형제 수(명)*	2.5±0.8	2.6±0.9	0.093

* : 평균±표준편차

남학생은 진로관련 특성에서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직업 계획이 있는 경우가 79.6%, 직업계획이 없는 경우가 5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본인예상 진로, 부모기대 진로는 출산 의도와 관련이 없었다(표 19).

표 *19.* 남학생 진로관련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출산 희망군 (n=455)	무자녀 희망군 (n=133)	P-값
본인예상 진로			
고등학교 졸업	20(66.7)	10(33.3)	0.543
전문대학 졸업	43(79.6)	11(20.4)	
4년제 대학교 졸업	303(77.7)	87(22.3)	
대학원 이상	87(77.7)	25(22.3)	
부모기대 진로			
고등학교 졸업	7(77.8)	2(22.2)	0.144
전문대학 졸업	25(62.5)	15(37.5)	
4년제 대학교 졸업	331(78.4)	91(21.6)	
대학원 이상	88(78.6)	24(21.4)	
직업 계획			
있다	430(79.6)	110(20.4)	0.000
없다	25(52.1)	23(47.9)	

여학생은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기대 진로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까지가 74.3%로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까지는 58.4%로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본인예상 진로, 직업계획은 출산 의도와 관련이 없었다(표 20).

표 *20.* 여학생 진로관련 특성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명(%)

변수	출산 희망군 (n=391)	무자녀 희망군 (n=161)	P-값
본인예상 진로			
고등학교 졸업	30(65.2)	16(34.8)	0.330
전문대학 졸업	58(66.7)	29(33.3)	
4년제 대학교 졸업	243(73.6)	87(26.4)	
대학원 이상	60(66.7)	30(33.3)	
부모기대 진로			
고등학교 졸업	20(69.0)	9(31.0)	0.037
전문대학 졸업	46(66.7)	23(33.3)	
4년제 대학교 졸업	280(74.3)	97(25.7)	
대학원 이상	45(58.4)	32(41.6)	
직업 계획			
있다	364(71.5)	145(28.5)	0.301
없다	27(62.8)	16(37.2)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은 자아존중감에서 각각 29.7±4.9점, 27.4±5.7점, 내부적 통제신념도 각각 7.1±2.0점, 6.7±2.1점으로 "출산 희망군"에서 "무자녀 희망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외부적 통제신념, 우연신념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21).

표 *21.* 남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수	출산 희망군 (n=455)	무자녀 희망군 (n=133)	P-값
자아존중감(점)	29.7±4.9	27.4±5.7	0.000
내부적 통제신념(점)	7.1±2.0	6.7±2.1	0.041
외부적 통제신념(점)	4.3±2.6	4.6±2.6	0.250
우연 신념(점)	2.2±1.3	2.4±1.4	0.089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은 자아존중감에서 각각 29.2±4.7점, 28.2±4.9점으로 "출산 희망군"에서 "무자녀 희망군" 보다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통제신념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22).

표 22. 여학생 자아존중감, 통제신념과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수	출산 희망군 (n=391)	무자녀 희망군 (n=161)	P-값
자아존중감(점)	29.2±4.7	28.2±4.9	0.019
내부적 통제신념(점)	6.8±1.8	6.6±1.9	0.205
외부적 통제신념(점)	3.7±2.5	3.6±2.3	0.458
우연 신념(점)	2.1±1.3	1.9±1.3	0.151

E. 연구대상자의 결혼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결혼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학생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비해서 나쁜 경우에 결혼에 대한 비차비가 0.37(95% 신뢰구간 : 0.19-0.73)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가족형태가 부모 모두가 친부모인 경우에 비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 결혼에 대한 비차비가 0.07(95% 신뢰구간 : 0.01-0.44)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2.69(95% 신뢰구간 : 1.35-5.36), 자아존중감 점수가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비차비 1.04(95% 신뢰구간:0.99-1.10)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인 경우에 비해 2학년에서 결혼에 대한 비차비가 0.69(95% 신뢰구간 : 0.48-0.99),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비차비가 1.51(95% 신뢰구간 : 1.04-2.17),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비차비 1.05(95% 신뢰구간 : 1.01-1.10)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건강상태와 통제신념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23).

표 23. 연구대상자 결혼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변수	남학생		여학생	
	비차비	95% 신뢰구간	비차비	95% 신뢰구간
학년	-			
1학년			1	
2학년			0.691	0.480-0.995
종교	-			
없음			1	
있음			1.505	1.043-2.170
경제적 수준			-	
하	1			
중	0.987	0.535-1.823		
상	1.600	0.599-4.277		
계열				
인문계열	1		-	
자연계열	1.318	0.759-2.288		
예.체능계열	0.717	0.194-2.649		
실업계열	0.709	0.387-1.299		
건강상태				
좋음	1		1	
보통	0.777	0.472-1.280	0.800	0.535-1.196
나쁨	0.370	0.186-0.734	0.661	0.343-1.274
가족형태				
친 부모	1		-	
새 부모	0.978	0.275-3.481		
편 부모	0.887	0.416-1.892		
부모 안 계심	0.075	0.013-0.443		
본인예상 진로				
고등학교 졸업	1		-	
전문대학 졸업	1.294	0.420-3.988		
4년제 대학교 졸업	1.160	0.425-3.161		
대학원 이상	1.027	0.330-3.203		
직업 계획			-	
없다	1			
있다	2.693	1.353-5.359		
자아존중감(점)	1.041	0.990-1.095	1.053	1.008-1.100
내부적 통제신념(점)	1.101	0.980-1.238	1.029	0.926-1.144
외부적 통제신념(점)	1.062	0.958-1.178	1.042	0.955-1.137
우연 신념(점)	0.888	0.731-1.079	1.000	0.853-1.172

- :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

F. 연구대상자의 출산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출산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남학생의 경우 직업계획에서 없음에 비해 있음이 출산에 대한 비차비가 2.82(95% 신뢰구간 : 1.48-5.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음에 비해 나쁜 경우 출산에 대한 비차비가 0.29(95% 신뢰구간 : 0.15-0.55)로, 자아존중감 점수가 증가할수록 출산에 대한 비차비 1.06(95% 신뢰구간 : 1.01-1.11)으로 유의한 관련요인이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모 학력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비차비가 1.32(95% 신뢰구간 : 0.29-5.93), 부모기대 진로가 고졸의 경우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경우에 비차비가 1.38(95% 신뢰구간 : 0.58-3.27),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비차비 1.05(95% 신뢰구간 : 1.01-1.09)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남학생은 직업계획,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은 모 학력, 부모기대 진로, 자아존중감에서 관련이 있었다(표 24).

표 24. 연구대상자 출산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변수	남학생		여학생	
	비차비	95% 신뢰구간	비차비	95% 신뢰구간
직업 계획			-	
없다	1			
있다	2.825	1.480-5.391		
건강상태			-	
좋음	1			
보통	0.776	0.487-1.238		
나쁨	0.293	0.156-0.550		
모 학력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졸업	-		0.756	0.168-3.397
대학교 졸업			0.374	0.102-1.375
대학원 이상			0.244	0.067-0.889
부모기대 진로				
고등학교 졸업			1	
전문대학 졸업	-		1.623	0.604-4.357
4년제 대학교 졸업			1.509	0.702-3.247
대학원 이상			2.252	1.270-3.993
자아존중감(점)	1.060	1.012-1.110	1.052	1.010-1.096
내부통제신념(점)	1.019	0.918-1.130	-	
외부통제신념(점)	1.040	0.948-1.141	-	
우연통제신념(점)	0.991	0.828-1.187	-	

- :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

Ⅳ. 고찰

본 연구는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의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통제신념 등을 포함한 여러 특성과 결혼 및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로 응답한 "결혼 희망군"이 여학생은 65.8%, 남학생 79.4%, 전체 72.8%였다. 또한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이 있는 "출산 희망군"은 남학생 77.4%, 여학생 70.8%, 전체 76.8%였다. 결혼 의도의 경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강복수 등, 2005) 결과인 69.6%와는 비슷하였으나, 대학생의 91.8%가 결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선행연구(김보경과 김한곤, 2005) 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출산 의도의 경우 대학생의 44.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결혼 적령기에 가까워지는 대학생에 비해 결혼에 대한 의도가 현실보다는 이상에 가깝게 인식되어 응답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의도와 출산 의도는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낮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의식수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1980년 이후 남, 여 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김한곤, 1993; Dewit과 Ravanera, 1998; Budig, 2003). 이에 따라 독신 여성이 증가하거나,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위해 결혼을 미루게 되었고, 그에 따라 출산이 늦어지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박상화와 김응익, 1992; Brewster와 Rindfuss, 1997; Williamson, 1998). 본 연구의 여고생 응답 결과도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과거 1970-80년대의 경우, 남녀 대학생 대다수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유영주, 1976; 정현아, 1984), 이때의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자립할 수 없었고, 남성과의 결혼은 여성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정태연, 2006).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들의 취업률도

1990년에는 남자대학생의 70.5%가 취업하고, 여자대학생의 47.3%가 취업한 반면, 2003년에는 여자대학생의 61.8%, 남자대학생67.1%가 취업하는 등(교육통계연보, 2004),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보다는 취업을 더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학업의 연장 등 더 장기적인 준비가 요구되면서 결혼을 미루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권태환, 1997). 또한 남녀평등과 여성교육 기회확대로 더 좋은 직업과 더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를 원하기 때문이다(Jacobs, 1996). 하지만 결혼과 더불어 가사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과 완전한 직장인이기를 바라는 사회에서 이중적인 부담이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기피하거나 자녀출산을 회피하게 만든다(정태연, 2006).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들이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세대별로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가사와 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진보적이고 자아실현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조혜자 등, 2005). 점차 세상은 바뀌어가고 자신의 직업 역할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능력있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고, 여성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비해, 가족 내의 성역할과 남성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가정과 사회에는 여전히 남녀 차별제도가 남아있어, 여성은 직장 일과 가사 일 및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사회분위기는 여성에게 자녀출산에 이어 양육의 질까지 높이려는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은 불공평한 역할분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이런 가족 내의 성역할이 달라지지 않고,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져주지 않으면서, 결혼제도 안에서 여성에게만 가사와 양육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면,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결혼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남학생은 건강상태, 가족형태, 직업계획, 자아존중감 등이, 여학생은 학년, 종교, 자아존중감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남학생의 경우 건강상태, 직업계획, 자아존중감, 여학생은 모 학력, 부모기대 진로, 자아존중감 등이었다. 남학생은 결혼과 출산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자신의 건

강과, 직업 계획 등 경제적인 안정감과 도리 등 현실을 반영하는 특징과 관련이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학년 종교, 모 학력, 부모기대 진로 등 가족과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남녀 학생 모두에서 관련이 있었던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였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도 중요한 전제가 됨을 의미한다(Diener 등, 1999).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나 내부적 통제신념이 높은 경우 결혼 전 출산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나 규범에 벗어나는 생각을 할 위험을 낮추고,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Plotnick, 1992; Plotnick, 2007).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에 모두 관련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평가가 가치판단으로서 자신의 역량이나 유능함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로 결혼과 출산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특성은 가족 구조 및 관계와 관련이 깊다(Carton와 Nowicki, 1994; Storksen 등, 2005).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의 중요성이 돌출된다. 김양숙(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수용 받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신효식과 김근화, 2004; 최유진과 유계숙, 2007). 따라서 가족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 나아가서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방법이 단면 연구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러 특성과의 관련성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특정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와 남녀 모두를 조사하여 학교 특성과 성에 따른 차이를 없애려 노력했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도만을 파악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실제 결혼과 출산에는 어떻게 연결될 지는 불분명하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도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청, 장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 확대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여 결혼과 출산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시도한 것으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남학생의 경우 직업에 대한 계획과 자아존중감이 결혼과 출산에 관련이 있고, 여학생의 경우 종교, 부모기대 진로, 자아존중감이 결혼과 출산에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실현이 결혼과 출산에 긍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여건의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구체적 특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앞으로 부모가 될 청소년의 미래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통제신념 등을 포함한 여러 특성과 결혼 및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1,140명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혼 및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t-검정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남학생 79.4%, 여학생 65.8%이었고, 출산에 대한 계획의 경우는 남학생 77.4%, 여학생 71.0%로 남학생이 결혼과 출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의 결혼 여부와 관련이 있는 특성은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비해서 나쁜 경우에 결혼에 대한 비차비가 0.370(95% 신뢰구간 : 0.186-0.7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족 형태가 부모 모두가 친부모인 경우에 비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 결혼에 대한 비차비가 0.072(95% 신뢰구간 : 0.013-0.443), 직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2.693(95% 신뢰구간 : 1.353-5.359), 자아존중감 점수가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비차비는 1.041(95% 신뢰구간 : 0.990-1.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인 경우에 비해 2학년에서 결혼에 대한 비차비가 0.691(95% 신뢰구간 : 0.480-0.995),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비차비가 1.505(95% 신뢰구간 : 1.040-2.170),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비차비는 1.053(95% 신뢰구간 : 1.008-1.100)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출산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남학생의 경우 직업계획과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등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 학력, 부모기대 진로, 자아존중감 등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의 결혼 및 출산 의도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복수, 정윤경, 황태윤. 여고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6; 10(1): 31-39

권용은, 김의철.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2004; 13(1): 211-226

권태환. 한국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서울 1997; 13-154

김갑숙, 강연정. 여자청소년의 신체관련변인, 자아존중감, 내부적통제력이 섭식장애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7; 25(3): 1-17

김남일, 강성홍. 최근 출산형태의 변화. 한국인구학회지 1994; 17(1): 17-31

김보경, 김한곤.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2005; 6(2): 45-73

김성혜, 김초강. 결혼 관련요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보건학회지 1991; 8(1): 87-97

김승권.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출산력 저하에 따른 가족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1997; 7: 20-31

김승권.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부포럼 2003; 86: 6-21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2003년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3: 1-17

김승권.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 방안. 2004년 국회예산결산 2004

김정례.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김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김유경, 김승권.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김윤주. 미혼남녀의 자녀양육관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김한곤. 여성의 지위와 출산력에 관한 미시적 분석. 인문연구 1993; 15: 259-272

남현아, 양수. 초등학생부모의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 정신간호학회지 2005; 14(3): 323-334
문세정. 저출산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박상화, 김응익. 우리나라 출산력 수준 변동에 따른 장래 인구추계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2; 9(1): 25-33
박숙자.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여성연구 2005; 8: 121-145
신효식, 김근화.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학회지 2004; 7(2): 47-58
손승연.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 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2005; 17(2): 285-316
조성연. 대학생의 부모 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 됨의 의미와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07; 28(3): 1-16
조혜자, 방희정.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5; 10(1): 95-112
정상훈. 저출산에 따른 여성복지 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5
정정숙. 일본시민사회의 여성적정대표성과 시민사회의 평등화; 국제정치논의 2003; 43(2): 320-341
정우현.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대한가정의학회지 1983; 21(2): 131-145
정태연.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6; 11(2): 143-162
정현아.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4
정혜선.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녀수와 출산의지 및 출산장려 정책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정혜옥. 한자녀 가정의 자녀출산 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동작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이시백. 저출산 시대의 신 인구 정책 및 여성인력 활용대책.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 자료집 2001: 17-25

이원덕, 장지연.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정책;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 발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2002: 47-86

이용복.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임창희. 직장여성의 외모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수준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 경영학연구 2007; 36(3): 597-621

유영주.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1976; 2: 127-150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1984.

장혜경. 가족정책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 모색돼야. 나라경제 2003; 3:

정구현. 한국의 출산력 추이 및 전망. 통계분석연구 2005; 5(2): 111-132

정재구. 한국인의 출산력 추이 분석. 경기대산업연구 1995; 6(1): 57-67

조남훈,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저출산 시대의 인구문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32-49

최유진, 유계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7; 25(3): 59-75

통계청. 대학생졸업생 취업율. 연도별 자료2004

통계청. 노령화지수. 연도별 자료(1980~2010),2004a

통계청. 사망률지수. 연도별 자료(1990~2003),2004b

통계청. 출산율지수. 연도별 자료(1980~2003),2004c

홍문식. 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1998; 21(2): 182-227

황해범.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Budig MJ. Are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histories interdependent? : an examination of causal order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2003; 32(3): 376-402

Brewster KL, Rindfuss RR.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97; 26: 271-296

Carton J, Nowicki S. Anteced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locus of control of reinforcement: A critical review.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994; 120: 31-81

Dewit M. Ravanera Z. The changing impact of woman's educational attainment on the timing of Canada.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1998; 25: 45-67

Diener E, Suh EM, Lucas R, Smith 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999; 125: 276-302

Jacobs HA. Gender inequality and higher edu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96; 22: 153-185

Hantrais L.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policy and changing family forms within the European Union. Eur J Pop 1997; 13: 339-379,

Plotnick RD. The effects of attitudes on teenage premairtal pregnancy and its re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2; 57: 800-811

Plotnick RD. Adolescent expectations and desires about marriage and parenthood. Journal of Adolescence 2007; 30: 943-963

Storksen I, Roysamb E, Moum T, Tambs K. Adolescents with a childhood experience of parental divorce: A longitudinal study of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2005; 28: 725-739

Wenk D, Carrett P. Having a baby: Some predictors of maternal employment around childbirth. Gender & Soc. 1992; 6(1): 49-65

Williamson JE. Growth, distribution, and demography: Some lessons from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998; 35: 241-271

설 문 지

【고등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에 근무하며,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남·녀 고등학생 여러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순수 학술연구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비밀이 보장되고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 될 것이오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라송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Ⅰ. 다음 사항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 표를 해주십시오.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3.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다 ⑤ 기타( )

4. 학생의 형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남 ( )녀 중 ( )째

5. 학생의 주 성장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읍면지역 ② 중·소도시 ③ 대도시

6. 학생 집안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은 편이다

7. 학생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0~149 만원 ② 150~299 만원 ③ 300~449 만원 ④ 450~599 만원 ⑤ 600 만원 이상

8. 부모님의 형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 : ( )남 ( )녀 중 ( )째
   모 : ( )남 ( )녀 중 ( )째

9.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 업	부	모
①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의원, 행정 및 경영 관리자, 고위공무원)		
② 전문가(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교사, 목사, 건축사 등)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간호사, 의료기사, 기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기술자 등)		
④ 사무종사자(일반 공무원, 사무직 종사 회사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술직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		
⑫ 주부, ⑬ 무직		

10.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졸업

11.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졸업

12. 학생은 현재 어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②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③ 친아버지와만 살고 있다 ④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⑤ 친어머니와만 살고 있다 ⑥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다

13. 학생 본인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년 전체 성적에 대비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① 상위 10% 이내 ② 상위 30% 이내 ③ 상위 50% 이내 ④ 상위 70% 이내 ⑤ 상위 70% 이후

14. 학생의 학과 계열은 무엇입니까? (1학년은 이후 계획을 표시해주세요)
① 문과 계열 ② 이과 계열 ③ 예·체능계 ④ 실업계열

15. 학생은 향후 최종학교 공부를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16.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최종 학교 공부를 어디까지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17. 학생은 미래에 직업을 가질 계획입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생각해보지 않았다
☞ 있다면 직업의 종류는 어떠합니까?
① 전문직 ② 공무원 ③ 회사원 ④ 기술직 ⑤ 기타 :

18. 현재 학생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하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II.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19. 학생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20번으로 가세요)
② 하는 편이 좋다 (☞ 20번으로 가세요)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21번으로 가세요)
⑤ 생각해 보지 않았다

20. (18번 ①, ②로 응답한 경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②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③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 위해
④ 자녀를 갖고 싶어서 ⑤ 성적욕구를 충족하기위해서 ⑥ 남들도 대부분하니까
⑦ 기타 :

21. (18번에 ④로 응답한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행동 또는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서 ②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어서
③ 폭넓은 이성교제를 원해서 ④ 사회 활동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⑤ 기타 :

22. 학생은 결혼을 한다면 언제가 가장 이상적인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세

23. 학생은 결혼을 몇 살 정도에 할 예정입니까? _____세, ① 할 생각이 없다

III 출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24. 학생은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편이 좋다 ③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④ 없는 편이 좋다 ⑤ 생각해 보지 않았다

25. 학생은 자녀를 가질 예정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생각해 보지 않았다

26. 자녀를 낳는다면 첫 아이를 몇 살에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세

27. 학생이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첫 아이는 몇 살에 낳을 생각입니까? _____세

28. 학생은 자녀의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결혼 후에 낳아야 한다 ② 결혼과 관계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③ 생각해 보지 않았다

29. 학생은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없어도 상관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30. 학생은 실제로 몇 명의 자녀를 갖고자 하십니까?
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31. 자녀의 양육은 주로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부모 모두 ④ 부모 외에 다른 가족

IV. 학생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삶은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천하도록 한다.				
3.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4. 나는 어느 때라도 내 이익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다.				
5.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루게 된 것은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6. 불행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7. 대부분의 일은 행운이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8. 인생은 운이 따라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9.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10. 내 인생은 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				

V. 아래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문장을 잘 읽고 자신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의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 혹시 빠진 문항은 없는 지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미래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 작 물 이 용 허 락 서

본인이 저작한 학위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 하에 대학교에 저작권을 위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와 아카이빙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를 허락함
2. 저작물의 DB 구축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논문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을 허락함
3. 저작물에 대한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간을 계속 연장함
4.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속 대학에 통보함
5. 배포, 전송된 학위논문은 이용자가 다시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연구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함
6. 소속대학은 학위논문 위임 서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확인함
7. 소속대학의 협약기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논문 제공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조건부 동의( ) 반대( )

※ 조건부 동의 및 반대인 경우 사유 및 조건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조건 :

저작자 성명 : 라 송 주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금호타운1차 3동 101호(연락처 : 062-675-6329)

2008년 2월 일

이름 : 라 송 주 (인)

조 선 대 학 교 총 장 귀하